

안동 문화 **FEEL**

느낌이 있는 관광 | 2020 Winter VOL.52



CONTENTS

04

Analog Andong
안동 금소마을 쇠노리공방(경함정)



10

Food Navigation
촌가, 동굴 매운탕
짬만두(안동 웅부점), 뉴델리 베이커리



(재)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발행인 권영세

발행처 (재)안동축제관광재단

편집책임 하주희

편집위원 김남두 권재환 황진현

주소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욱사로 239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2-9230

이메일 aftf@naver.com

홈페이지 www.tourandong.com

www.maskdance.com www.aftf.com

발행일 2020년 12월(통권 제52호)

디자인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종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안동축제관광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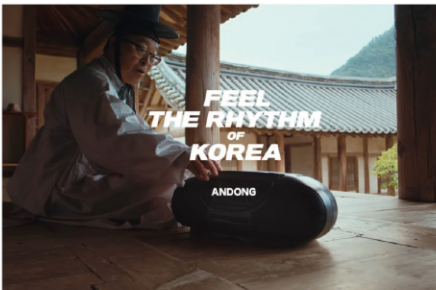
A N D O N G

문화도시안동

14

Dynamic Andong

역사, 전통을 넘어 동시대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는 안동 문화도시



20

Original Andong

감각을 자극하는 여행지
Feel the Rhythm of Andong



26

Newly found Destination

하회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한 장소, 겸암정사



32

Go Anytime

또 하나의 안동 문화재,
안동차전놀이

36

재단 소식

금속공예의 매력과 고택의 정취에 빠지다.

안동 금소마을 쇠노리공방 (경함정)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이 되면,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에서의 시간이 간절해지곤 한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코앞까지 다가온 요즘, 따뜻한 공기를 가득 머금은 고택 온돌 체험에서 쉬어가며, 다채로운 금속공예도 즐길 수 있는 안동 금소마을 쇠노리공방(경함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계절 베풀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안동 금소마을

쇠노리공방이 자리잡은 금소마을은 거문고 소리가 나는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비봉산 아래 마을을 감으며 비단을 펼쳐놓은 듯 반짝이는 반변천 물결과 그 뒤를 둘러싸는 푸른 들판의 모습을 통해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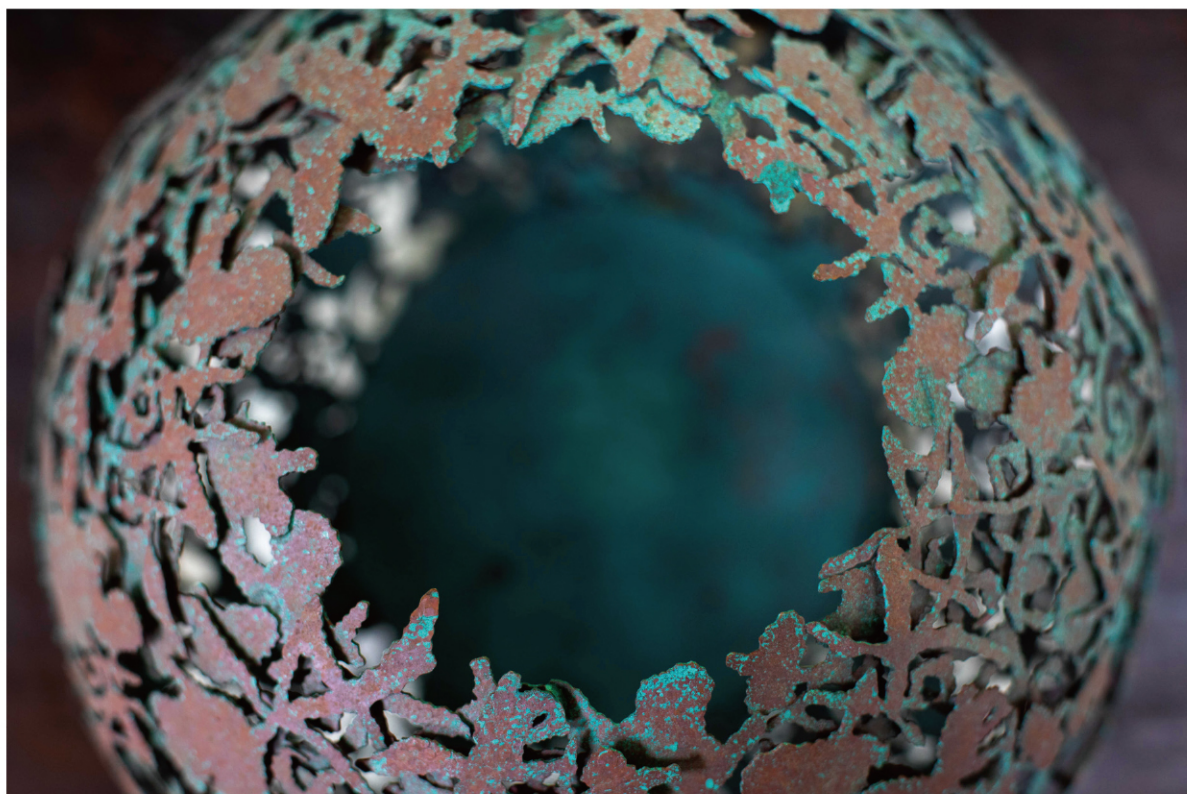
금소마을은 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전승되는 수공예의 고장이다. 근·현대시기, 기후와 토질이 대마(안동 삼베)재배의 최적지로 이름이 알려지며 안동포의 고장이 되었다. 삼베의 본 고장답게 마을 주민이 모여 활동하는 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는 2019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삼베짜기 보유단체'로 지정받았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1호 안동포짜기 기능보유자'도 두 분이 활동 중이다. 또한 2020년 7월 국내 최초로 의료용 대마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대마 산업재배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출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강화반달이



경(慶)



천연기에 지고지순(노리개)



좋은날(함)



정(공예도구)

금속공예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쇠노리공방(경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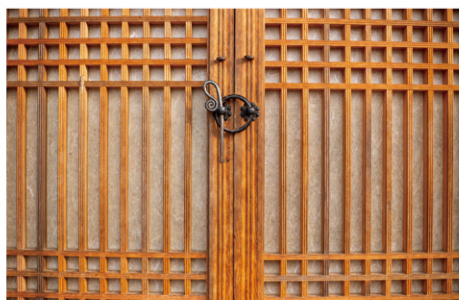
바쁜 도심을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휴식을 취하는 '힐링'의 장소가 각광받고 있는 지금,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맑은 곳인 금소마을이야말로 최적의 힐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소마을은 아름답고도 정겨운 풍경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봉산 아래 금소에 솟아나는 약수 또한 마을의 자랑이다. 금소마을 뒤편에 자리 잡은 쇠골(쇠골) 샘터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샘물이 청반을 뚫고 올라와서 물을 길러 오는 인근 식당과 마을 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쇠골 약수터에서 시원한 물 한바가지를 마시고 주위를 돌아보면 푹푹푹 정겨운 망치질 소리와 함께 돌담너머로 소담스럽게 앉아있는 경함정이 보인다. 몇 발자국을 옮겨 경함정으로 가면 대문칸 입구에 쇠노리공방이라는 멋스러운 간판이 반긴다. 쇠노리공방은 대한민국 전통기능승자(고용노동부 2011-1호 금속패물분야) 임방호 장인이 전통장식과 금속제품을 만들고 있는 공방이다.

공방을 들어서면 끼이익거리는 나무대문소리가 운치를 더하며 손님을 반긴다. 싸리빗자루로 가지런히 쓸어놓은 마당을 밟으며 들어서면, 기초 기반부터 임방호 장인이 직접 지었다는 쇠노리공방 건물들이 경함정 양쪽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옥의 기와를 하나씩 잘라 쌓으며 장식한 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빈틈없이 금속을 다루고자 하는 장인의 완벽함이 느껴진다.

금속 공예 작업실에는 벽면을 따라 장인의 다양한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작업실 한가운데에는 장인의 작업대와 공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 작업실이라 하면 먼지 가득하고 쇳가루가 저벅저벅 밟히는 곳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서는 공예 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속 공예 체험과 수업이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구들이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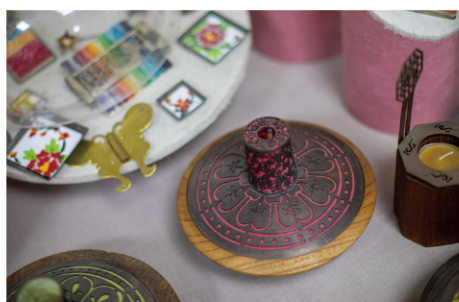


최노리공방에서는 ‘은장신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가톨릭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금속공예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노리공방의 대표 체험인 은반지 만들기 체험은 은반지에 자신의 이름이나 기억하고 싶은 말들을 새겨 넣을 수 있어 개별적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교 및 크고 작은 여러 단체에도 인기가 많다. 공방에 사전 예약을 하면 은반지 만들기 체험 외에도 적동(赤銅)으로 제작하는 동스쿱, 차 워머, 차통, 동컵 등 여러 금속 소품들을 원데이 수업으로 체험 및 제작할 수 있다.

최노리공방의 본체인 경함정은 안동 선비문화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의 경(經)사상을 이어받은 ‘계와 임소한(1856~ 1931)’을 추모하며 지어진 건물이다. 1996년에 지어졌으며, 3칸 겹집목조와가로서 방 두 칸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방문은 분합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합문을 들어 올리면 대청과 방이 이어져 하나의 큰 공간이 만들어지며, 이 공간을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놀이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자 안에는 각 문중에서 보내온 건립시판이 경함정의 가치를 더욱 빛낸다. 경함정 마루에 앉아 앞산을 바라보면 갈암 이현일(1627~1704) 선생이 직접 심은 소나무가 푸른 절개를 우아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갈암 이현일 선생은 퇴계 이황 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영남학파의 대표적 성리학자로서 말년에 금소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내신 분이다.

경함정 바로 옆에는 목판을 보관하던 장판각인 세복당이 있으며 그 옆에는 지방 문화재인 금곡재가 있어 안동이 유교의 산실이자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해 준다.

경함정은 고택숙박업에 등록되어 있어 그윽한 고택이 주는 정취를 느끼며 하룻밤 머물러 갈 수도 있다.



대한민국전통기능전승자, 임방호 장인

문화재청의 철물분야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 소유자인 임방호 장인은 금소마을에서 다양한 장식을 제작하며 금속 공예가 주는 아름다움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 경상북도 도지사상, 안동시장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전통기능 전승자, 송곡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며 우리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주요활동이력

- 대한민국전통기능전승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 경상북도 미술대전추천 초대작가
-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심사위원
- 대구광역시 공예품대전 심사위원
- 부산광역시 관광상품대전 심사위원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심사위원
-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심사위원
- 정수 미술대전 심사위원
- 경상북도 최고장인선정 심사위원
- 경상북도 건축미술품 심사위원
- 대구광역시 관광상품대전 심사위원
- 경상북도 산업미술대전 심사위원
- 송곡대학교 겸임교수
- (前)안동공예전시관 관장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4길 23-4
경합정 내 쇠노리공방

☎ 전화번호 010-5309-9887

안동의 맛

글, 사진 남시언

콘텐츠 크리에이터, 작가, 파워블로거, 블로그(<http://namsieon.com>)

초가

낙지볶음과 칼국수로 안동 시민분들에게 유명한 로컬 맛집입니다. 당북동 자이아파트 근처, 경상북도교육청도립도서관 인근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집을 식당처럼 개조한 가게인데, 가게 앞 주차공간이 여유롭습니다. 동네 주민분들과 주변 직장인분들에게 인기 맛집! 낙지볶음과 칼국수가 인기메뉴입니다. 낙지볶음의 경우, 주문할 때 볶음밥으로 주문하면, 기본으로 볶음밥을 만들어서 내어줍니다. 밑반찬이 정갈하며 신선합니다. 칼국수는 면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며 국물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낙지볶음과 칼국수의 조합이 좋습니다. 옛날 스타일의 된장과 장물(양념장) 등 안동 고유의 맛이 잘 살아있는 맛집입니다. 전반적으로 양이 푸짐해서 가성비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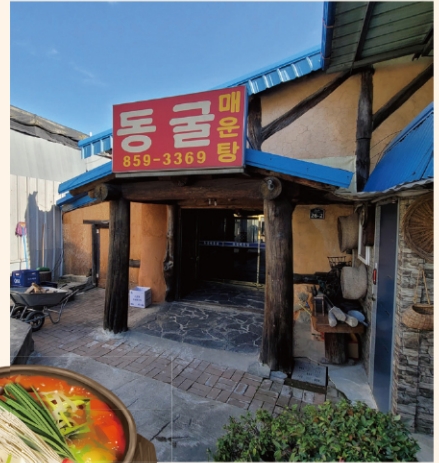
- 추천메뉴 낙지볶음(볶음밥으로 주문) + 검은콩 칼국수
- 주소 안동시 강변마을2길 10-4
- 전화번호 054-855-7887
- 휴무일 매주 일요일
- 영업시간 11:00~20:00



동굴 매운탕

수상동 안동병원 근처에 자리 잡은 매운탕 맛집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맛있는 매운탕을 분위기 있게 즐기기에 좋은 가게입니다. 입구가 동굴처럼 생겼다고 해서 동굴 매운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가게에 들어갈 때 마치 동굴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과거보다 가게가 깔끔해졌고 맛은 더 훌륭해졌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칼칼한 메기 매운탕으로 유명하며 2인분 이상 주문시 돌솥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음식은 주문 후 조리할 때 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테이블마다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오래도록 끓이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얼큰하고 칼칼한 맛으로 해장에 특히 좋습니다!

- 추천 메뉴 메기매운탕
- 주소 안동시 강남로 26-2
- 전화번호 054-859-3369
- 휴무일 매주 월요일
- 영업시간 11:00~21:00



짬만두(안동 응부점)



짬만두는 오래전부터 안동에서 만두 맛집으로 가장 유명한 가게 중 한 곳입니다. 최근에 응부공원 맞은편 자리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새우만두, 고추새우만두, 고기만두, 김치만두 등 기존 짬만두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다양한 군만두 메뉴도 추가되었습니다. 고추새우만두는 생각만큼 맵지 않으며 김치만두 쪽이 좀 더 매운 맛을 냅니다. 피가 얇고 속이 꽉 찬 스타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법한 만두 맛집입니다. 짬만두 안동 응부점은 가게 인테리어에도 많은 신경을 써두어서 매우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샷을 찍기에도 손색없는 배경을 자랑합니다. 맛있는 만두와 멋진 배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추천 메뉴 고기만두, 새우만두, 김치만두
- 주소 안동시 서동문로 188-1
- 전화번호 054-855-6699
- 휴무일 매주 화요일
- 영업시간 10:00~21:00





뉴델리 베이커리

명륜동에서 가장 유명한 옛날 빵집입니다. 길원여자고등학교 바로 앞에 자리한 이곳은 오랜 역사와 시민분들의 추억을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빵맛이 좋아서 안동 빵순이, 빵돌이에게 인기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장님이 20여년 넘게 빵을 만들고 계시는 이 가게는 졸업생들에게는 추억을, 학생분들에게는 저렴하고 맛있는 간식을 팔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매우 친절하시며 베이비슈, 옛날식 파배기 등 시그니처 메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빵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도 실천하는 훌륭한 가게입니다. 일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 추천 메뉴 베이비슈, 파배기, 슈크림빵 등
- 주소 안동시 퇴계로 253
- 전화번호 054-859-3530
- 휴무일 일요일 격주 휴무
- 영업시간 07:00~22:00



역사, 전통을 넘어 동시대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는 안동 문화도시

글 임정혁 안동축제관광재단 문화도시TF팀장

안동, 잊고 있었던 개혁과 혁신의 지역 정체성을 되살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만든다!

전국이 문화도시로 뜨겁다!

지금, 전국 각 도시가 국가 정책 사업인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진입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하고 있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조성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의 노력과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며, 제출된 조성계획이 선정되면 1년 간의 예비 문화도시 기간을 거쳐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승인 받게 된다.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부천시,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로 총 7개이며, 2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는 총 12개 도시(제주 제주시, 인천 부평구, 오산시, 강릉시, 춘천시, 공주시, 완주군, 순천시, 성주군, 통영시, 김해시, 남원시)이다. 이들 도시는 2020년 한 해간 예비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말 최종 발표를 통해 본 도시로 지정되게 된다.



3차 법정 문화도시 추진협의회 회의



문화도시 포럼



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 문화도시를 선정하는 올해, 총 41개의 도시가 공모에 뛰어 들었고 이 중 서면검토를 통해 25개 도시가 최종 발표를 하게 되었다.

안동시도 3차 예비 문화도시 선정 공모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서면검토를 통과하여 12월에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지역문화 진흥법상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문화자치형' 성공사례 도시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는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5~10개 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2019년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개 내외의 도시를 지정할 계획인데, 광역시·도 거점별 2~3개의 문화도시 육성을 통해 다양한 환경과 조건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문화도시 지정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전국적 문화도시 지정과 권역 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제도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간 국비 최대 100억 원(지방비 매칭 50%로 사실상 200억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동 문화도시 플랫폼’ 서포터즈 발대식

안동은 어떤 문화도시를 그림 그리고 있는가?

안동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과 인적자원, 스토리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안동의 문화도시시는 이러한 지역의 풍부한 역사전통자원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시민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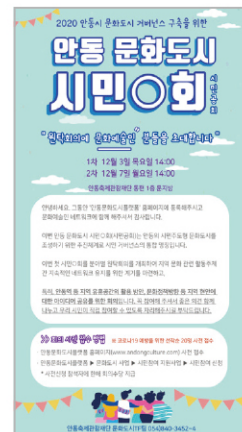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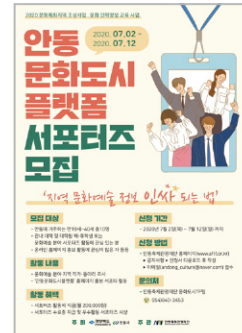
안동의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를 매개로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이 일상이 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 중인데, ‘안동은 어떤 문화도시를 하고자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모은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안동의 정체성 회복과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온고 혁신의 문화도시이다.

신라-고려시대의 화엄사상과 조선시대의 성리학,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개혁정신.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혁신사상과 지도이념의 실험지는 수도인 경주, 개성, 한양이 아닌 바로 안동이었다.

역사 속에서 개혁과 혁신의 지역인 안동과 안동인의 정체성이 현재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21세기 안동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이 시민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안동시민의 질문과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민의 삶을 발견하고 조명하여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로 역동적인 도시 문화와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관 주도 사업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여 문화 민주를 실현하는 것인데, △시민주도,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미래지향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도시민의 생각을 모으고, 철학을 세우며, 시스템을 만들어 문화도시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안동은 그동안 문화도시의 예비적 성격의 사업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통해 안동의 차별화된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화도시 추진협의회, 시민라운드테이블, 포럼, 콜로키움, 민간PD회의, 시민리더 네트워크 등 70여 회 이상의 소통 과정을 통해 문화도시를 이해하고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은 향후 법정 문화도시 지정뿐만 아니라 문화로 지속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나도 감사' 2기





문화도시안동

문화도시, 선정의 촉매보다 거버넌스 시스템과 도시 철학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각 도시들의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문화도시 계획수립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문화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개념보다 이를 계기로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화도시의 개념과 추구하는 상을 만드는 도시 철학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도시 문화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민·관·전문가 간의 거버넌스 소통구조를 구체화·체계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야만 안동의 도시 발전, 문화 민주주의 동력이 자치, 자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 문화PD 거버넌스 전략 회의



문화도시 캠페인 - 강윤정(안동대 사학과 교수)



문화도시 캠페인 - 송승환(배우, 리크리에이터)



유희공간 활용사업(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2020 아마-도예술가 토크콘서트



안동시민리더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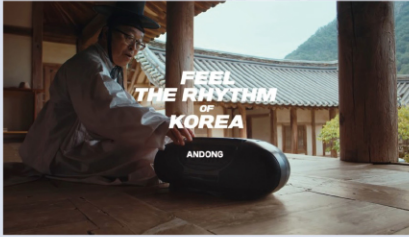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지금 안동의 전통자원을 재해석하고 동시대의 가치를 즐겁게 풀어나가는 사람들, 바로 도시의 발전 주체인 안동시민의 발칙한 상상력과 시민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안동에 고착된 이미지와 브랜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민문화, 동시대의 문화에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소비하는 청년문화,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문화가 점점 확장되는 여정 동안 안동문화도시는 서서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어른문화, 유교문화로 고착되었던 안동에서 21세기 안동의 청년이 만드는 문화도시는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삶의 기록이자 도시의 기록, 나아가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감각을 자극하는 여행지

Feel the Rhythm of Andong



(출처: 한국관광공사 Imagine your KOREA)

글 이준일 물질문화연구회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는 홍보영상이 있다. 바로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가 그것이다. 처음에 서울, 전주, 부산에서 찍은 세 개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어 2탄인 안동, 강릉, 목포에서 찍은 영상을 내놓았다.

대개의 관광홍보영상이 화제가 되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이 영상이 유튜브는 물론 각종 SNS와 방송 등에서 다루어진 것은 영상에 등장하는 음악과 춤에서 느껴지는 묘한 감성 때문일 것이다. 전통에 뿌리를 두었지만 어딘지 낯선 음악과 희한하게 '믹스매치'한 의상, 한국무용인 듯 현대무용인 듯 절묘한 춤사위의 조화에 대중들은 '힙하다'고도 하고 '신박하다'고도 하며 이 영상에 열광했다. 게다가 영상에 등장하는 장소들은 평소 익숙하다거나 진지하다고 할 수 있는 다소 정적인 곳이라 그 효과는 배가 되었다.

평소 우리는 전통문화를 대할 때 늘 진지함을 앞세우곤 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의 인기는 전통적이지만 전통이 아닌 방식으로 즐기는 문화, 때로는 B급감성이라고 할 만큼 주류를 벗어난 방식, 그리고 보다 쉬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안동편의 배경이 된 관광지는 하회마을, 부용대, 병산서원, 월영교, 만휴정 등이다. 이미 각종 미디어와 홍보영상의 주인공 공격인 곳들이다. 그런데 이번 한국관광공사의 영상에서 색다른 해석, 새로운 분위기로 장소들의 매력을 이끌어내고 있어 흥미롭다. 이 밖에 이전의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안동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하회마을 설경

하회마을과 부용대

부용대는 하회마을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해발 64m의 절벽이다. 정상에 오르면 하회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하회마을을 방문할 때 함께 둘러보는 중요한 관광명소다. 절벽 아래에는 옥연정사와 점암정사, 화천서원이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영화 '순수의 시대(2015)', '왕을 참하라(2017)', '궁합(2018)', KBS2 드라마 '황진이(2006)', '추노(2010)', MBC 드라마 '투윅스(2013)', KBS2 드라마 '조선총잡이(2014)' 등 여러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었다. 그중에 먼저 화려한 의상으로 시선을 모았던 드라마 '황진이(2006)'가 떠오른다. 극 중에서 임백무(김영애 분)가 최후를 맞이하기 전 슬픔과 아픔이 깃든 학춤을 선보이는 배경으로 부용대 정상에서 바라보는 하회마을이 펼쳐진다. 햇볕 가득한 하회마을과 흰 한복을 입은 배우의 춤사위가 어우러져 영상미를 더한다. 영화로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2014)'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깎아지른 듯한 부용대 절벽에서 김민(김명민 분)과 서필(오달수 분)이 쫓기는 장면에 항공촬영 된 하회마을 전체가 등장한다. 영화의 분위기에 맞게 CG처리가 되긴 했지만 한 눈에 하회마을임을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하회마을과 부용대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거의 원형 그대로 등장할 만큼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부용대에서 바라본 하회마을



하회마을 만송정

병산서원



병산서원 만대루

낙동강 물줄기가 크게 S자를 그리며 하회마을을 감싸 흐르는데 하회마을 반대편 굽이에 병산서원이 위치한다. 서애 류성룡과 그 아들 류진을 배향한 병산서원은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절벽과 마주하고 있어 풍광이 빼어나다. 특히 병산서원의 중심인 만대루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병산을 병풍처럼 조망할 수 있는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촬영지이다.

영화 '미인도(2008)'에는 신운복(김규리 분)이 만대루에서 김홍도(김영호 분)와 함께 그림 공부를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2002)'에서는 만대루에서 열린 고을 현감의 생일잔치에 오원장승업(최민식 분)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두 장면 모두 길게 뻗은 마루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비추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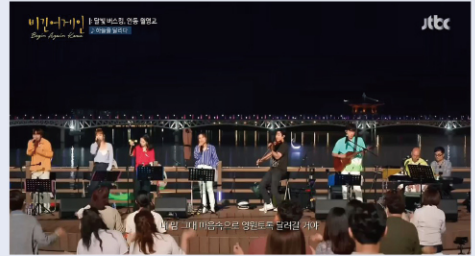
보통 병산서원 하면 한여름에 짙은 분홍색의 꽃이 피는 배롱나무와의 조화를 손꼽는데, KBS2 드라마 '추노(2010)'에서는 만대루의 지붕과 강 건너 절벽에 백설기처럼 눈이 쌓인 배경이 등장하여 겨울 병산서원의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했다.



병산서원

월영교

월영교는 1998년 고성이씨 이응태의 묘에서 출토된 원이
엄마의 편지를 모티브로 2003년 건설된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교이다. 안동댐의 저수지와 어우러진 운치 있는 풍경
도 아름답지만 특히 야경 명소로 유명하다. 여름이면 분수
쇼도 보여주고 있어 시원한 한 때를 보낼 수 있기도 하다.
이곳은 영화 ‘부라더(2017)’의 촬영지로도 이름을 알렸다.
주변에 예쁜 카페와 맛집도 많아 현지 주민, 관광객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특히 KBS2 드라마스페셜의
‘국시집 여자(2016)’에서는 물안개가 드리워진 월영교를 배
경으로 촬영되어 안개의 도시라 할 만한 안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JTBC 예능 프로그램인 ‘비긴어게인
(2020)’에 월영교의 야경과 문보트가 등장해 야경 명소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버스킹이 끝날 무렵 마법처
럼 물안개가 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기도 했다.



JTBC 비긴어게인 - 안동 월영교



만휴정



만휴정

조선시대의 문신 김계행(金係行, 1431~1517)이 만년을 보내기 위해 1500년에 지은 정자인 만휴정은 tvN드라마 '미스터션샤인(2018)'을 통해 가장 최근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곳이다. 만휴정은 안동의 주요 관광지외도 동떨어져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거의 없어서 관광객의 발길이 자주 닿던 곳은 아니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주인공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는 장면에 등장하고 난 후부터는 만휴정의 외나무다리에서 SNS에 올릴 '인증샷'을 찍기 위한 발길이 쇄도하다시피 했다. 여행에서 인증샷 남기기를 즐기는 문화도 한 몫 하긴 했지만 요즘의 여행자들이 전통적인 분위기의 관광지를 어떻게 즐기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Feel the Rhythm of Korea' 안동편 - 만휴정



만휴정과 송암폭포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의 안동편에서 고택 대청에 앉아 갓과 두루마기를 펼쳐놓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버튼을 누르는 첫 장면에서부터 그 익살스러움에 눈이 갔다. 그리고 도깨비처럼 곳곳에서 춤을 춰대는 홍보영상 속 댄스팀은 마치 전통문화는 그저 바라보며 감탄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 했다.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그동안 안동이 만들어진 전통적이고 진지하고 때로는 엄숙하기까지 한 이미지를 기대한다. 물론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겠지만 보다 흥미롭게 미적 감각이나 흥을 자극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지금까지 나열한 장소뿐만 아니라 안동 곳곳에 흩뿌려진 여행지에서 나만의 감각, 나만의 흥을 자극하는 안동여행의 매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하회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한 장소, 겸암정사

글, 사진 강영린 안동축제관광재단



방산집(舫山集)

겸암정(謙巖亭) - 허훈(許薰)

前臨潭壁後穹林。
粧占名區適淺深。
鹿洞煙雲餘異馥。
龍門絃誦有遺音。
松風灑落疑天籟。
江月澄鮮證道心。
滾滾昏塵如脫卻。
筇鞋勝日此來尋。

앞에는 맑은 강물 뒤에는 푸른 숲,
높낮이 알맞게 정자 터 잡았구려.
녹동의 끼친 향기 변함없이 남아 있고,
용문의 글소리 아직도 들리는 듯하네.
시원한 솔바람 천뢰가 부는 듯,
강물 속 맑은 달은 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네.
어지러운 세상 티끌 잊을 수 있어,
지팡이 끌고 날씨가려 경치 좋은 여기에 찾아 왔네.

“무릇 하회가 안동의 승경을 독점하였는데, 이 정자가 또 하회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한 것이다.”

조선 후기 문신 이상정(李象靖)이 쓴 겸암정 기문(謙巖亭 記文)의 일부이다. 위의 문구를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SNS에서 안동 관광지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겸암정사(謙菴精舍)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의 그 곳은 코로나19가 왔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른 세상의 장소 같았다. 그래서 겸암정사에 대하여 검색을 거듭하던 중 위의 문구를 보게 되었고, 직접 눈에 담고자 겸암정사로 향했다.



겸암정사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화천서원(花川書院)에서 부용대(芙蓉臺)를 거쳐서 가는 길과 광덕리에 있는 겸암정사로 바로 가는 길이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고 경북도청에서 택시를 타고 겸암정사로 향했다. 도착하고 보니 잠시 외출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주인 어르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대문에 걸려있었다. 그래서 주인 어르신께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하니 흔쾌히 열쇠 위치를 알려주셨다.





덕분에 겸암정사에서 잠깐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겸암정사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의 형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선생이 28세에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을 위하여 지은 곳이다. 두 암벽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하는데, 암벽의 우거진 넝쿨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하여 자세히 살펴야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당호는 그의 스승이었던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께서 지어준 것으로 류운룡 선생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 자신의 호로 삼았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 내외분이 생활하시는 ㄱ자형 살림 채가 보였고, 그 맞은편에 ㅡ자형 겸암정이 있었다. 겸암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보이는 것은 액자 속 한 폭의 그림이었다.





“깨끗한 모래와 옥 같은 조약돌이 널리 퍼져 있고 질푸른 절벽과 푸른 강물이 선명하게 연이어 펼쳐진 데다 질게 깔린 운무와 울창하게 우거진 수목이 아침저녁으로 경치를 달리하는지라, 한 번 눈길을 두면 뜰 안에서 한 발짝 걸음을 옮기는 사이에 모든 승경을 다 취하니 그 가진 바가 매우 풍부하고도 대단하지 않은가?”

겸암정 기문 중 일부로, 겸암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묘사한 글이다. 현재의 모습도 가을을 맞아 울긋불긋한 모습만 차이가 있을 뿐 과거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근경의 단풍과 절벽 아래 흐르는 낙동강, 건너편의 백사장과 숲의 풍경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면서 ‘하회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한 장소’라는 평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에 방문한다면 위의

묘사와 같은 느낌의 겸암정사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에 선생의 옥연정사(玉淵精舍)와 서로의 방문을 위하여 이용했다는 부용대 절벽의 층길을 건너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층길의 이용은 불가능하였다.

겸암정사의 풍경도 좋았지만, 기분 좋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 없는 집의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주인 어르신 덕분이었다. 대문을 닫고 드린 전화에서는 허허 웃으시며 만족스러웠는지 물어보신 주인 어르신의 배려 덕분에 마음 따뜻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현재는 겸암정사에서 주인 내외분이 민박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마을의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는 주인 내외분이 일손을 도우러 가서서 운영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 꼭 방문 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하여 겸암정사는 풍경이 좋은 카페이기 전에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이며, 주인 어르신 내외분이 기거하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며 차분하게 둘러보길 바란다.

류운룡 선생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이자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이다. 그는 학문 연구에 뜻을 두었으나, 부모의 뜻에 따라 음서(蔭紱)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는 임금의 윤허를 얻어서 귀향하여 모친을 모시고 적을 피해 다니며 집안이 온전하도록 노력하였다. 이후 다시 관직에 나갔으나, 연로하신 아버지를 봉양하고자 관직을 내려놓고 귀향하였다. 모친의 병환이 깊어진 이후에는 양진당(養眞堂) 옆에 빈연정사(賓淵精舍)를 지어서 별도로 이용했다.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여! 본체(本體)는 강하여도 쓰임에는 부드러웠도다.”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기록되어 있는 겸암 선생의 묘갈명 일부이다. 겸암 선생은 학문 수양을 통하여 높은 학덕을 쌓았음에도 현명함을 끼고 행세하지 않았다. 관직에 있을 때는 법도를 엄히 지켜서 위엄과 은혜를 행하였다. 또한 서애 선생이 조정에서 나라를 위해 힘을 쓸 동안 겸암 선생은 고향에서 어버

이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선생은 자신의 호처럼 늘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의 모습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평가받는다.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37
전화번호 010-6689-0988



또 하나의 안동 문화재, 안동 차전놀이

글 이재춘 안동차전놀이보존회장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긍지 높은 가치를 내걸고 있는 안동은, 그 가치에 걸맞게 국가지정문화재 99점, 도지정문화재 229점 합쳐 총 328점으로 유·무형의 여러 우수 문화재를 보유한 곳이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는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등 여러 유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와 같은 무형 문화유산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잘 알려진 하회별신굿탈놀이나 도산서원 등이 아닌 또 다른 안동의 문화유산 ‘차전놀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인 ‘차전놀이’의 본고장이 안동이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듯하다. 아니 안타깝게도 ‘차전놀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차전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4호(1969년 1월 7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하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안동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차전놀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의 하나로, '동채'라는 기구를 만들어 양편으로 나뉘어 승패를 겨루는 대동놀이이다. 동채는 약 5.2미터정도 되는 통나무 두 개를 사다리 모양으로 교차시킨 다음, 그 윗부분을 새끼줄로 단단하게 묶고, 사다리꼴의 안쪽에는 폭이 1미터쯤 되도록 판자를 엮어 고정시켜 만든다. 어느 한편의 동채가 상대편의 동채를 내리 눌러 땅에 닿도록 하면 승리를 거두게 되며, 이때 승리한 쪽에서는 자기가 신고 있던 짚신을 하늘로 던져 올려서 기쁨을 표시하기도 한다.

안동차전놀이는 통일신라 말, 후백제의 왕 견훤이 고려 태조 왕건과 싸움을 겨루고자 안동으로 진격해왔을 때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건과 견훤의 명운이 걸린 고창(당시 안동의 지명)전투에서 왕건의 군대는 월영교 앞 위치한 진모래에 독을 쌓은 뒤, 소금을 넣어 만든 소금물에 견훤의 군대를 힘으로 밀어 넣어 수장시키고자 했다. 이로 말미암아 팔짱을 낀 앞 동채꾼이 상대편을 밀어내는 차전놀이가 생겼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는 견훤이 안동에 쳐들어왔을 때 이 고을 사람인 권행·김선평·장정필(이들을 모신 태사묘가 안동에 있어 지금도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이 짐수레와 같은 수레 여러 개를 만들어 타고 견훤의 군대를 격파한 데서 놀이가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상무(尙武)정신이 깃든 차전놀이는 후삼국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고창전투가 그 유래인 만큼, 안동 지역의 역사와 그 결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차전놀이는 농한기인 음력 정월대보름에 빠지지 않고 거행되어 왔을 정도로 우리의 역사와 함께했다. 하지만 안압곶계도 1922년에 일제에 의하여 금지되었다. 광복 후 1958년 건국 10주년 기념행사로서 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민속예술 제전을 개최하면서 다시 부활하였다. 1966년에는 안동중학교 학생이 본격적 차전놀이를 연출하였으며, 1969년에는 '사단법인 안동차전놀이보급회'가 설립되고 이 해에 안동 차전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면서 차전놀이는 다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무형문화재로서 차전놀이의 가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2000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새해 세계 공인산업 EXPO'에 초청되어 전야제에서 공연된 바 있으며, 2016년 캐나다 벤쿠버, 2018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한인문화 예술축제'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 등 세계인들에게 안동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또한 차전놀이의 실제모습은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에 안동탈춤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안동의 문화유산인 차전놀이는 '안동차전놀이보존회'를 통해 전수 및 보존되고 있는데, 2020년 7월 안동 차전놀이 전수교육관이 탈춤공원에 새로 개관되어 상시적으로 차전놀이의 역사와 유래, 동채의 실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단체를 설립하고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역 문화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차전놀이가 안동의 문화유산에서 그치지 말고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자리를 잡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안동차전놀이 전수교육관



① 안동차전놀이 전수교육관 전경 ② 전시실 ③ 체험실 ④ 홍보 교육실

-  **입 장 료:** 무료
-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239
-  **입장시간:** 하절기 09:30~17:30 / 동절기 09:00~17:00 (공휴일, 주말 휴관)
-  **문의사항:** 054)854-0300



‘안동에 가면’ 행사 성황리 종료

재단과 안동시는 지난 9월 취소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20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안동에 가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1일(일)까지 주요관광지와 탈춤공원에서 펼쳐졌으며, 안동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1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7일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는 물론 온뜨레피움 등 곳곳에서 게릴라성 버스킹 공연 형태로 진행되었다. 공연은 현장 진행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영상 중계도 제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비대면 공연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의미 있었다는 호평을 얻었다.



‘탈:물돌이동 사람들’ 제작 발표회

재단은 지난 10월 25일 탈춤공원(탈춤공연장)에서 탈창작마당극 ‘탈:물돌이동 사람들’(이하 물돌이동 사람들)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물돌이동 사람들’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하회탈 제작유래인 허도령 이야기를 소재로 하며, 100% 지역 문화 인력으로 배우 및 연출진이 구성되었다. 제작된 마당극은 향후 탈춤축제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축제 붐업을 위해 안동시 일원에서도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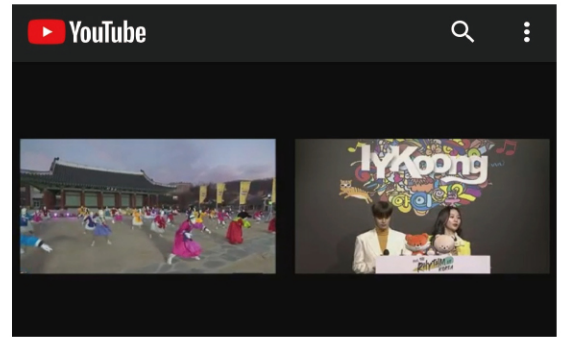
무빙트립 무장애 안동여행 팸투어 진행

재단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인 무빙트립과 함께 안동 무(無)장애여행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에는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협회 회원들과 열린관광지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이동 약자들이 안동 어디든 찾아가 즐기고, 탐방하며,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 개선점을 찾아내고,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안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은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도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한 무장애 도시 안동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쿱 댄스챌린지’ 참여해 안동관광 세계에 알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5개 관광거점도시가 개최하는 ‘아이쿱 댄스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안동시를 비롯한 4개(부산, 강릉, 전주, 목포) 관광거점도시의 지역 관광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전 세계 누리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와 틱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5개 거점도시들이 릴레이 생방송으로 연결해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냈다.

안동은 웅부공원에서 40여 명의 탈놀이단이 준비한 플래시몹 커버댄스를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홍보했다.



탈춤공원 환경개선 진행

재단은 탈춤공원 야외 나들이객을 위해 탈춤공원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저녁시간 운동을 위해 탈춤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두운 공원을 밝히는 가로등과 씨치라이트, 야간 조명등을 전체 교체했다.

또한 안전을 위해 공원 입구 블록을 교체하고, 정자 및 화단 조명을 설치하는 등 깔끔하게 새단장을 했다. 재단은 탈춤공원 환경개선을 통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탈놀이단 게릴라 공연 진행

재단은 지난 9월에 취소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20의 아쉬움을 달래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안동 주요관광지에서 탈놀이단 소규모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은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지난 11월 한 달 간, 안동 문화의 거리와 월영교에서 매주 토요일 1시부터 4시 30분까지 4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게릴라성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과 주말에 안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스크 착용!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

①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여기서 반드시 착용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구분	1단계(생활방역)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1단계 시설,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위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간직하세요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운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고
얼음이 녹으면, 언 땅 밑에 갇혀 있던 만물이 소생하듯

2020년 한 해를 잘 버텨낸 안동문화 필 구독자 여러분!
2021년, 새해는 기대하고 계획했던 일 진행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Korean Spirit, Full of the glorious doctrines of Confucian and Buddhist Culture. Home of Korean learning and etiquette.
Boasting of a five-thousand-year-old history.*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

 blog.naver.com/aftf

 [instagram.com/andongtour](https://www.instagram.com/andongtour)

 www.facebook.com/tourandong

 '안동노닐기' 검색

 **안동축제관광재단**
Andong Festival Tourism Foundation

(우)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239
TEL 054)840-3400 FAX 054)852-9230
E-mail aftf@naver.com 홈페이지 www.tourandong.com

